

# 專門管理人導入 · 育成이 要求된다

## 中小企業研究는 聯合 또는 研究所에 委託

文 熙 晟

韓國가스公社 社長

### 序 言

우리나라는 解放 이후부터 본격적인 産業社會로 탈바꿈 되어 왔으나 이러한 짧은 기간동안으로는 西歐社會와 같이 自体 技術을 開發, 蓄積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일부 尖端産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基礎 産業분야는 先進諸國과 상당한 수준의 技術隔 差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매년 輸出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輸入도 輸出의 증가폭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결과로서 무역수지의 적자가 계속 되는 현상으로도 나타났다. 예를들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등과 같은 高付加價値 제품을 수출하여도 이들 제품의 기초 소재인 주요부품을 精密機械 및 材料分野에서의 기술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 均衡있는 專門人力開發 및 活用

우리 經濟가 지난 20여년 동안 고도의 經濟 成長을 지속하고 先進 工業國家들을 따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비교적 풍부한 人的 資源과 국민의 높은 尙學熱이 큰 역할을 하였다. 專攻分野에 따라 다소需

給의 不均衡은 있었으나 經濟成長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量的需要는 비교적 원활히 充足시켰으며, 이는 표1에서와 같이 高卒者中 大學進學比率이 타 선진국을 능가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표-1〉 대학진학비율 및 대학생 수의 국제비교

	한국('84)	일본('82)	서독('83)
고졸자의대학진학비율(%)	33.9	28.6	15.1
인구1000당 대학생수(%)	18.6	15.3	14.8

그러나 고도의 技術開發을 주도하는 高級人力의 養成에 있어서는 先進諸國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高級人力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1/10-1/20에 불과하며, 인구 천명당 기준으로 先進諸國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날 우리 大學이 量的으로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質적으로는 大學院 중심의 高級人力 養成등에게 반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産業발전에 따르는 高級人力의 需要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데에 기인하며, 企業자체에서도 研究 및 技術 開發分野에 적극

〈표-2〉 연구원 수의 국제비교

	한 국 ( ' 83 )	미 국 ( ' 82 )	일 본 ( ' 83 )	서 독 ( ' 79 )	프랑스 ( ' 79 )
연구원 총수 (만명)	3.2	69.8	34.2	11.1	7.3
인구1000명당 연구원수	8	30	29	18	14

적인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던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가한 것은 産業界와 學界사이의 協力體制가 부족 하였다는 것이다. 이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상호간 觀念의 差異를 들 수 있는데 産業界 측에서는 근시적인 안목으로 단기 이익의 회수를 요구한 반면 學界에서는 産業界 관련 實用化 研究를 다소 등한히 하고 理論的, 純粹學問的인 연구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점차 技術 産業社會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상호간의 인식과 노력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專門人力開發에 있어서 향후 유의하여야 할 것은 專門 分野別 均衡 유지와 質的 수준의 향상이다. 대량의 高級 人力 養成에 따른, 質的 水準의 저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00년경에는 物理, 化學, 數學, 生物 및 地球科學등과 같은 분야의 人力은 과잉의 우려가 있으며, 化工, 原子力, 土木등은 비교적 균형을 유지할 것이나 電子, 機械, 材料등의 분야는 부족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으므로 각 企業에서도 自体 人力開發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지속적인 研究開發에의 投資 및 投資 擴大

研究 및 技術開發은 많은 資本의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研究開發 投資費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바 投資額의 절대치는 차치하더라도 상대적 비교치인 GNP대비 投

資比를 선진국 수준인 3%선까지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80년대에 들어서 부터는 企業에서도 매출액대비 研究開發 投資比를 증가시키고 있긴하나 아직은 약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것도 分野別 投資比의 차이가 심하여 機械, 電氣 및 電子分野의 경우 2-3%로 비교적 높은 반면 기타 製造業에는 1%에도 미달하는 실정에 있다. 근래에 와서 政府가 企業의 研究開發投資에 稅制 및 金融上의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企業의 研究開發投資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分野別 均衡投資가 이루어지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일반 私企業에서는 企業 이윤에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임을 감안, 公共 部門 혹은 基礎分野에 대한 투자는 정부산하 研究機關이나 정부 投資機關에서 중심적으로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자본력이 낮은 中·小企業은 聯合體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관련 타연구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研究開發의 투자가 될 것이다.

### 효율적인 技術開發 및 專門 管理人的 育成

研究 및 技術開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專門管理上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의 각 企業들도 技術開發 및 研究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企業體의 부설 연구소가 설립 되었고 기술적 高級人力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들을 운영해 나아가는데 있어 專門管理人的 不在 혹은 不足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다. 일반적인 企業의 組織體系는 從的인 관계가 강하며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관념상으로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러한 組織體系가 받아들여졌으나 신속한 정보화 및 기술혁신의 현 시점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조직은 研究 및 技術開發에 효율성과 탄력성을 결여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능률과 낭비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재래의 전통적인 從的 組織體系에 획기적인 요소를 가하여 연구소의 運

(15페이지로 계속)